

## 프랑스 언론, '가짜 뉴스' 막기 위해 적극 노력

최지선 / 파리 2대학 박사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령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대선 후보 에마누엘 마크롱의 유세 현장. (저작권 © 연합뉴스 무단복제 및 무단사용 금지)

'가짜 뉴스'로 국내외가 시끌벅적하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올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짜 뉴스가

프랑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것이다. 미 대선에서 가짜 뉴스의 유통에 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프랑스의 우수 언론들이 가짜 뉴스 판별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 페이스북·구글과 손잡은 언론사들

사실 허위 정보, 유언비어가 유포·유통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문제도 아니다. 거짓 소문을 담은 노래를 유포해 선화공주와 혼인까지 하게 된 서동의 사례만 보아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짓 소문과 그것의 영향력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미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정식 명칭까지 얻게 될 만큼 허위 정보 유통이 문제시된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구어로 전해지거나 특별한 형식 없이 유포되던 허위 정보, 헛소문과 달리 형식적으로 언론사의 기사 형태를 띠거나 정교한 이미지를 갖춰 신뢰성을 확보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식을 갖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식적으로 신뢰성을 갖추고, 자극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짜 뉴스는 '좋아요'와 '공유' 시스템을 갖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날개를 달고 클릭 수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

프랑스에서도 미국,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SNS와 구글 뉴스 검색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압력이 커졌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뉴스 제공과 관련해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내용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우려와 규제 압력이 커지면서 결국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초, 페이스북은 프랑스에서 신뢰도 높은 언론사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르몽드, 리베라시옹, 렉스프레스, 뱅미뉘트 등 신문사와 AFP 통신, 뉴스 전문채널 BFM-TV, 공영방송 프랑스텔레비지옹, 프랑스 미디어몽드 등 8개 미디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먼저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 프로젝트 참여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를 판별하되 두 곳 이상에서 해당 정보가 '거짓'으로 판단할 경우 그 뉴스에는 '팩트체크'라는 깃발이 표시된다. 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경우,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가짜 정보는 광고를 차단하며, 더 나아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산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구글 뉴스랩 역시 프랑스 언론사들과 함께 크로스체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역시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16개 프랑스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도 AFP 통신, 일간지 르몽드와 리베라시옹,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 경제지 레제코, 지역일간지 라부아뒤노르, 니스마탕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 언론 생존 위해 '가짜 뉴스'와 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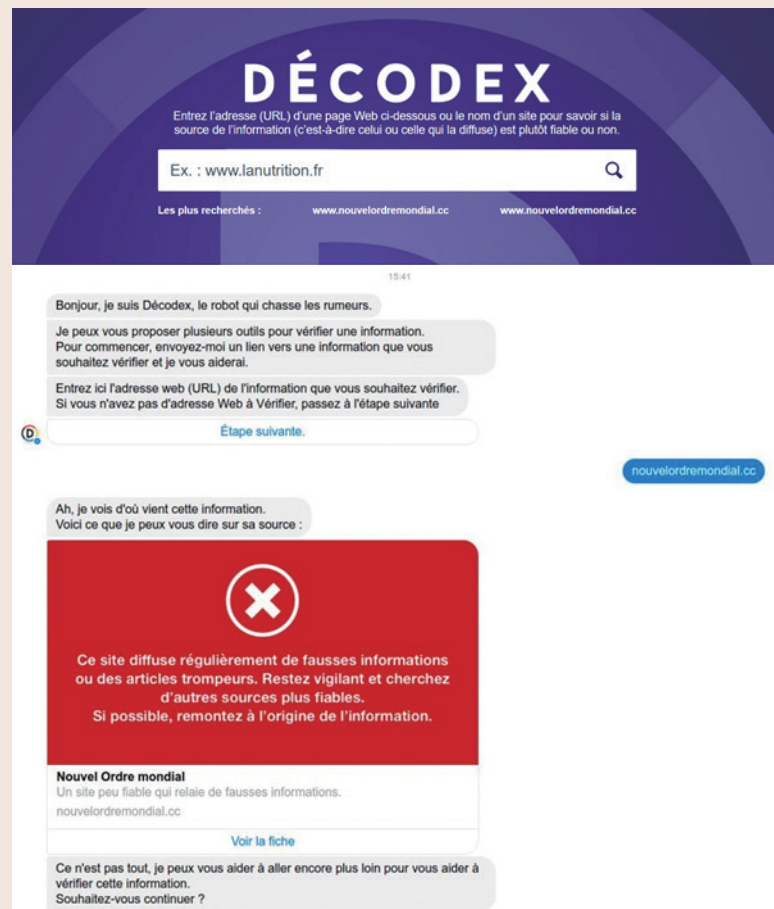
가짜 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페이스북과 구글이 언론사들과 협력을 통해 가짜 뉴스 판별과 유통의 제한에 두 팔을 걷어붙였지만 프랑스 언론들은 처음에 참여를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뉴스 저작권 문제, 세금 문제

등으로 두 미국 기업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언론사들은 프로젝트 참여 두 달 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참여했다.

언론사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가짜 뉴스가 범람할수록 언론사의 제대로 된 기사가 오히려 외면받는 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버즈피드가 미 대선 기간에 페이스북에서 댓글이 달리고 공유된 상위 20개 뉴스 기사를 분석했는데, 5~7월부터 가짜 뉴스에 대한 댓글과 공유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주요 언론사 기사에 대한 댓글과 공유는 하락세를 보였다. 또, 8월부터 선거일까지 가짜 뉴스는

870만 회가 공유됐고 주요 언론사의 뉴스는 이보다 적은 730만 회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페이스북과 손잡는 것을 망설이던 프랑스 언론들을 움직인 것도 바로 ‘가짜 뉴스’가 활개 칠수록 기존의 전통 언론사들의 뉴스가 힘을 잃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언론사 차원에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도 있다. 르몽드는 페이스북, 구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거짓 소문과 정보에 대처하고 나섰다. 우선 르몽드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연동해 의심스러운 뉴스 사이트나 정보에 대해 독자들이 팩트체크 붓과 대화할



일간지 르몽드는 페이스북, 구글과의 협력 외에도 자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르몽드 홈페이지 내 ‘해독자’ 메뉴(사진 위)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의 신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독자’ 메뉴를 통해 정보 제공 사이트의 신뢰 여부를 확인한 화면(사진 아래). (사진 출처-르 몽드(Le Monde)의 정보 제공 사이트 신뢰 확인 페이지 캡처)

“

페이스북과 손잡는 것을 망설이던  
프랑스 언론을 움직인 것은 가짜 뉴스가  
범람할수록 언론사의 제대로 된 기사가  
오히려 외면받는 현실 때문이다.  
가짜 뉴스가 활개 칠수록 전통 언론사들의  
뉴스가 힘을 잃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

수 있도록 했다. 또, 르몽드 홈페이지에서 ‘해독자’라는 메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의 신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으로 시중에 확산되는 소문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조목조목 확인해주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에게 소문의 내용과 소문의 잘못된 부분을 나란히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특히 정치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포함된 이미지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사와 동영상으로 제공하면서 뉴스리터러시적 접근도 시도하는 등 가짜 뉴스에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다. 언론사 자체적으로든, 온라인 기업과 함께 하든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가짜 뉴스’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한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첫째, 공익적 차원에서의 위기감이다. 디지털 기술을 등에 업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와 파급력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둘째, 언론사의 기업적 차원에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다. 앞서 보다시피 어찌 보면 오늘날 뉴스의 ‘성공’은

사실 여부보다도 ‘좋아요’와 ‘공유’로 얼마나 널리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칠수록 언론사들이 생산해내는 뉴스 시장은 축소될 수 있다. 셋째, 언론인 개인적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신뢰성과 자존심이 걸린 위기감이다. 형식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뉴스로 인해 공중의 뉴스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언론인들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 가짜 뉴스와 전 세계의 싸움

한편 독일 정부는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SNS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도 미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에 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의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유럽연합 역시 가짜 뉴스와 관련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사들이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이용자에게 뉴스의 거짓과 진실 여부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뉴스 이용자가 뉴스의 허위 여부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프랑스의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볼 만하겠다. 📌

### 참고 문헌

-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utm\\_term=.qsJvwaj3w#.cfavi8bz1](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utm_term=.qsJvwaj3w#.cfavi8bz1)
- [http://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7/02/06/huit-medias-francais-s-allient-a-facebook-dans-sa-lutte-contre-les-fake-news\\_5075054\\_3236.html](http://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7/02/06/huit-medias-francais-s-allient-a-facebook-dans-sa-lutte-contre-les-fake-news_5075054_3236.html)
-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2/09/decodeur-notre-outil-de-verification-de-la-fiabilite-des-sources-evolue\\_5077393\\_4355770.html](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2/09/decodeur-notre-outil-de-verification-de-la-fiabilite-des-sources-evolue_5077393_4355770.html)